

한국경제

2014. 4. 5

국제갤러리(주)

전시

백남준의 후예들 한자리에

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 고(故) 백남준 선생 후예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. 영화감독 박찬욱 씨의 동생인 미디어아티스트 박찬경 씨(49)가 예술감독을 맡은 ‘미디어 시티서울 2014’를 통해서다. ‘귀신,



간첩, 할머니’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서울과 독일을 오가며 활동하는 양혜규 씨를 비롯해 최원준, 배영환, 요네다 도모코(일본), 딘 큐레(베트남) 등 국내외 작가 42명(팀)이 참여했다. 굴곡진 아시아의 근현대사, 식민과 냉전의 경험 등을 미디어아트로 묘사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. 오는 11월23일까지,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과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. (02)2124-8922